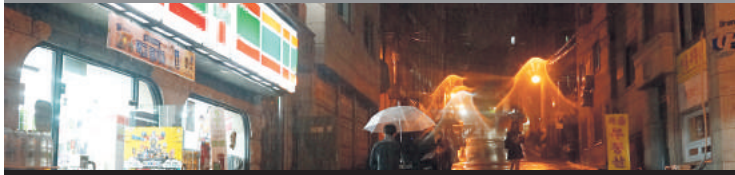


3» 유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6» 국제캠 학생·버스기사 간담회



2016학년도 서울, 국제캠퍼스 하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개설과목 확인 : 2016.05.04
수강신청 기간 : 2016.06.14 10:30 ~ 06.15 17:00
등록금 납부기간 : 2016.06.16 ~ 06.20 16:00
수업기간 : 2016.06.22(수) ~ 07.13(수)



서울캠 SPACE21 사업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SPACE21 사업이 한창이다. SPACE21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행복기숙사 공정률은 31%, 전체 사업은 22%이다. 서울캠 대운동장에는 간호·이과·한 의과대학이 들어설 예정이며 행복기숙사는 2017년 2월 말, 전체 사업은 2017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진=차관호 기자)

프라임사업 최종 심사에서 탈락

프라임사업 결과

박기윤 기자 kyoony7230@khu.ac.kr

우리학교가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PRIME) 사업에 최종 탈락했다. 3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학교가 지원했던 총 정원 10%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대형(사회수요 선도대학)사업에는 건국대, 숙명여대, 한양대(ERICA) 등 수도권 대학 3개 대학을 포함해 총 9개 학교가 선정되었다. 이화여대 등이 신청한 소형 유형에는 12개교가 선정됐다.

우리학교는 작년 11월부터 프라임 사업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으며 공식적으로 4회에 걸친 소통위원회와 그 외에도 수십여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구성원들과 소통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부족한 정보 공

유와 구성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더딘 바 있다. 우리학교는 1단계 서면평가를 통과해 지난달 진행된 2단계 대면 평가까지 마쳤지만 최종 선정에서는 고배를 마시게 됐다.

일부에서는 우리대학이 탈락한 것을 두고, 선정 대학 대비 정원 이동 규모에서 차이가 나는 점, 구성원 합의 과정에서의 갈등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총학생회와 갈등이 컸던 이화여대가 소형 사업에서 선정된 것을 볼 때 결정적인 이유로 들긴 어렵다는 것도 의견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6개월 이상 전체 구성원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만큼 ‘탈락’으로 인한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원조정, 학문단위 개편 등 평상시라면 하나하나의 사안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만한 무게

의 이슈들이 준비했던 만큼 계획서 상에 담긴 내용이 실제 현실화될 것 인지에 대해서도 관심거리다. 대학 측은 당초 “프라임사업에 선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획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학내 구성원들에게서도 속속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원이동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주희(사학 2012)회장은 “정책투표 과정에서 밝혀졌듯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구성원 간의 소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해서 함께 장기적인 학교의 발전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김병경(체육학 2009)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개월간 프라임사업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좋은 결과를 빚지

못해 아쉽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직원노조의 송혜경 노조위원장장은 “사업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침체되지 말고 다시 새롭게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구성원 간 긴밀한 소통으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교수회 김흥두(정보전자신소재공학)의장은 결과에 대해 “학교의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 구성원들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댓글에는 교육부의 불투명한 선정절차를 꼬집거나 캠퍼스간 균형발전을 요구, 그리고 계획안 자체의 부실함을 꼬집는 이용자의 의견도 있었다. 대학본부 측은 4일 현재 프라임사업 탈락과 관련하여 원인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계획을 담은 입장을 발표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Newsmaker

약학대학에 1억 기부한 82학번 문경, 김지연 부부



“4년 내내 장학금 받으며 학교 다녀 받은 만큼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김유림 기자 yuliu2@khu.ac.kr

#. ‘제가 사회로부터 얻은 재산을 다시금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기부 운동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빌게이츠는 말했다. 우리학교에도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해준 학교를 위해 기부 한 동문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약학대학 82학번 문경, 김지연 부부이다. 이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2일 약학대학에서 1억 원 기부행사가 열렸다.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기부한 이들은 약학대학 82학번 동갑내기 캠퍼스커플에서 부부가 된 문경, 김지연 동문이다. 이들은 의약품을 수출입하는 무역회사인 ‘파마레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로 재직 중이다. 큰 금액을 선뜻 기부할 수 있었던 이유로 학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꼽았다.

“입학 당시, 학교에서 우수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감사하게도 4년 동안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받으며 학교를 다녔죠. 늘 학교에 감사하고 받은 만큼 후배들에게도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흐뭇한 표정의 부부는 “마침 올해가 졸업한지 30주년인데 82학번 모교방문의 날을 기념으로 장학금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고(故) 조영식 학원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학창시절에 이들 부부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들은 학창시절, 알콩달콩한 캠퍼스 커플로 시험기간에 도서관 자리도 맡아주는 등 소소한 재미를 즐겼다고 한다. 또한 농어촌 투약방사를 하는 봉사동아리인 ‘경희약대’에서 함께 회장과 부회장을 하며 동아리를 이끌었다.

“옛날에는 약사가 투약도 가능해서 자격증을 지닌 선배들이 와서 함께 활동했다”는 이들 부부는, “공부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도 하면서, 선배들과의 교류도 할 수 있었던 동아리 활동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학창시절을 회상했다.

이들 부부에게 우리 학교는 큰 의미가 있다. 문경 동문은 “약사가 되기 위한 기반을 경희대학교에서 다졌고 이후 사회생활, 생계부양을 하며 이렇게 좋은 일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금까지의 자리에 있게 해 준 우리학교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김지연 동문은 “당시 가정형편이 어려웠는데 장학금 덕분에 고생하지 않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해준 학교에 항상 감사했다”며 “학교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 뜻 깊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라고 미소를 지었다.

이들은 후배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문 동문은 “저는 졸업한 다음에야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다보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직업의 선택권이 다양해서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서 후배들은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졸업 이후의 삶을 그려보면 좋겠어요”라는 문 동문은 바람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매학기 후배들에게 약사가 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후배들과의 교류도 꾸준히 하고 있다”며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표했다.

이어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순간을 열심히, 신나게 즐겼으면 좋겠다”는 이들 부부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기부를 할 생각”이라며 모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13

윤원근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자본주의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돈이 최고라는 생각인가? 지금 우리는 이러한 통념에 도전한 한 인물을 만나볼 것이다. 막스 베버. 그에 의하면, 인간은 ‘의미 추구 존재’이며, 자본주의는 욕망 추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의미 추구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다.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이러한 그의 생각을 보여

준다.

자본주의의 동력은 자본의 크기보다는 자본주의 ‘정신’의 발전에 있다. 자본주의 정신이 존재하면 자



막스 베버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의미 추구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다

본이 생성되고 화폐가 공급되어 그 정신을 수행하는 수단 노릇을 하지만, 자본이 있다고 해서 자본주의 정신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정신은 ‘노동의 합리적 조직’이다. 그것은 다섯 가지로 설명된다. ①노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②정직하고 근면한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다. ③감정의 동요에 따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경멸하고, 이성으로 잘 계획해서 실천하는 생활을 한다. ④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쾌락, 행복, 즐거움을 포기하고 쓸데없는 휴식과 게임을 물리친

다. ⑤돈을 모으기 위해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한다.

자본주의 정신은 왜 서구에서만 나타났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베버는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에 많은 영향을 준 칼뱅파의 ‘예정 교리’에 주목했다. 예정 교리는 서구인들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제공했다. 이 새로운 삶의 의미가 자본주의 정신의 원천이었다. 예정 교리는 절대주권자인 신이 자신의 뜻대로, 일부 사람만 구원되도록 예정해 놓았다고 주장한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전문가 칼럼

인공지능과 인류문명의 미래

송경재 (인류사회재건연구원)교수 >>7면



시선

사설

탈락이 가져다 준 ‘미덕’
차분한 ‘소통’의 시간

우리학교가 프라임사업에서 최종 탈락했다. 탈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프라임사업’이 그간 6개월 이상 우리 대학 내부를 커다란 논란 속으로 몰고 갔던 사안이었던 만큼 ‘탈락’이라는 결과 그 자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이번 프라임사업은 이전까지의 정부지원 사업과 비교했을 때 지원규모는 물론 그 내용면에서도 상당히 과격적인 사업이었다. 이 때문에 프라임사업은 구성원 전체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고, 구성원 간의 극심한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이 논쟁은 비단 사업을 추진하려는 대학과 이를 반대하려는 구성원 간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구성원 사이에서도 소속 단과대학이나 캠퍼스 별로 이해가 상충되는 지점에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며 치열하게 전개됐다.

대학의 세련되지 못한 사업 추진 방식이 이러한 구성원 간 논쟁 상황을 부추긴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신문이 지난 해 여름부터 대학 측에 프라임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질의할 때마다 대학 측은 ‘교육부의 세부계획안 발표 전’이라는 점을 들며 지속적으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도 대학 측은 ‘대외비’라는 명분 아래 관련 정보를 구성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대학은 ‘총 40회 이상 소통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업계획서 제출 며칠 전에 열린 마지막 워크숍에서도 드러났듯 일반 구성원은 대학의 소통을 ‘생색내기’ 정도로 체감할 따름이었다. 프라임사업을 준비하던 지난 6개월은 곧 우리학교가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그간 주장해온 바와 같이 사업 계획안이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하는 것이라면 프라임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학교 운영이 큰 타격을 입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탈락’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미덕이 있다면, 자칫 졸속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던 학문단위 개편과 그에 따른 정원조정을 이제는 각종 부작용과 구성원 불만 사항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채 차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일 것이다.

이제 대학은 대학이 그간 구상하고 있던 프라임사업 계획안을 전체 구성원에게 100%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장 프라임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정원조정, 학문단위 개편 등 실로 무거운 안건들을 실제로 진행해 나갈지, 만일 진행한다면 어떤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이전까지 ‘경쟁대학으로의 유출’을 우려해 공개하지 못하던 각종 정보는, 선정 결과가 발표된 지금 더 이상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프라임사업’이라는 변수가 제거된 이 시점은, 앞으로 대학이 어떻게 대응해가느냐에 따라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커다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끝없는 논쟁과 비판 속에 좌초하고 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구성원의 신뢰는 몇 개의 정부지원사업이나 장밋빛 청사진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성장의 기회가 될지 좌초의 계기가 될지 가르는 분수령은, 언제나와 같이 ‘소통’이 관건이다. 경희가 항상 취약했던, 그 소통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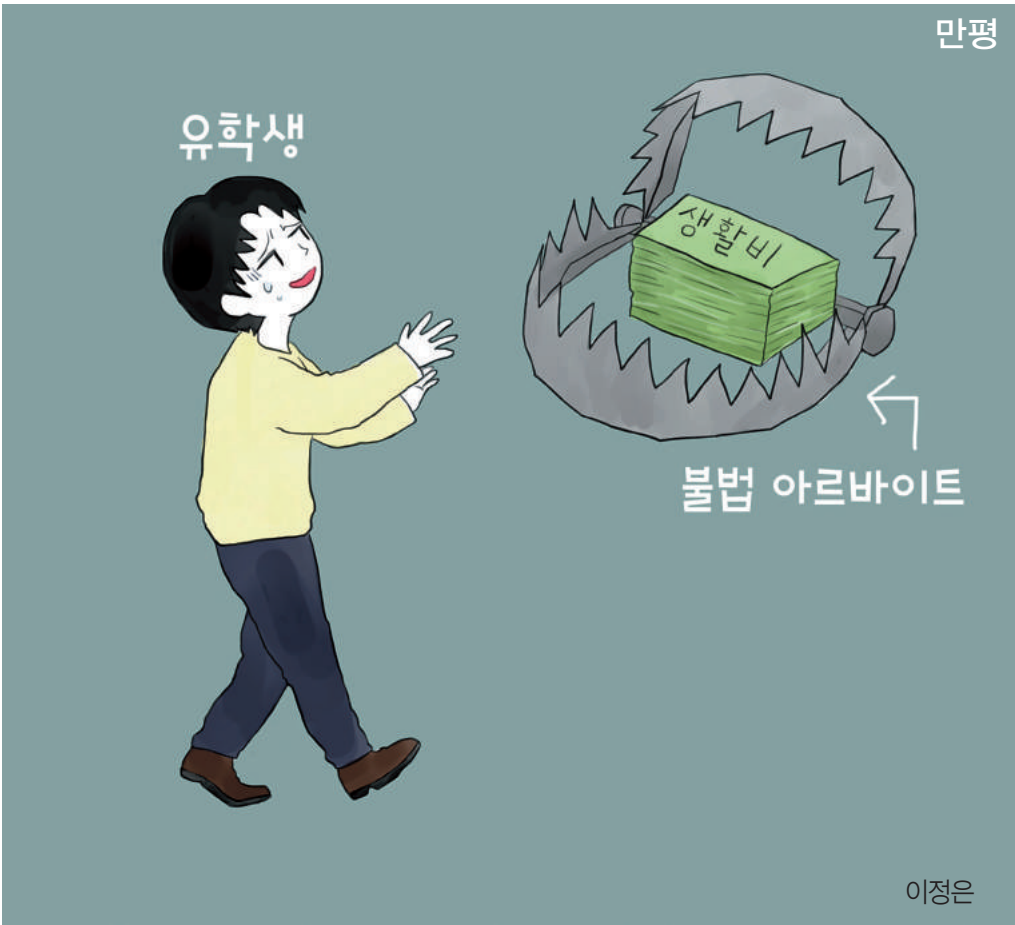
〈조선왕조 오백년〉으로 유명한
사극의 대가 신봉승 타계

미디어 여론동향 2016.04.25.~05.04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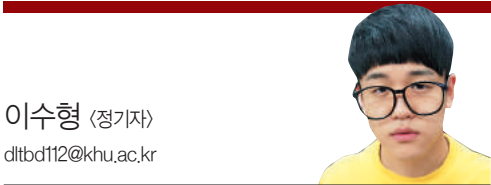
원로 극작가 신봉승(국어국문학 1958) 동문이 지난 달 19일 경기도 자택에서 향년 8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정통 사극의 대가 신봉승 동문 타계/대학주보 온라인, 2016.4.25) 신 동문은 1983년부터 약 8년 간 방송된 MBC 대하드라마 〈조선왕조 오백년〉을 집필하며 ‘정통사극의 대가’로 자리매김했다. 정사 원전 사료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극을 그려내는 그의 사명감은 퓨전사극이 범람하는 오늘날 콘텐츠 업계에 인문학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인은 우리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1960년 〈현대문학〉에서 시·문학 평론으로 등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외국인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여전한 소수자,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이수형 (기자)
ditbtd112@khu.ac.kr

우리학교는 고려대학교에 이어 한국에서 2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대학이다. 학부생만을 따지면 고려대마저 앞지른다. 지난 해 기준 3,144명의 유학생이 우리학교에 등록하는데, 이는 이전 해보다 약 15% 증가한 숫자로 총 재학생 수의 약 9% 규모에 달한다. 통계상으론 30명 정원의 강의마다 유학생이 3명씩 앉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점차 숫자를 불려나가고 있는 그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만큼은 아직 소수자다.

유학생들의 ‘미신고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등의 부당대우를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르바이트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유학생 본인의 과실 때문에 한국인 재학생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법적 구제를 받기도 어렵다. 그리고 ‘미신고 아르바이트’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홀로 해결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문제가 지속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이 부조리한 상황에 순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 중에 만난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중 단 한 명만이 본인이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조차도 “사장님이 친절하시다”며 그 업장에서 반 년 넘게 일하고 있다. 오히려 그들 중 대다수는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려 했다. ‘야간에 손님이 적어서 임금을 적게 받아도 괜찮다’라든지 ‘한국어 공부도 할 겸, 경험삼아 할 만 하다’, ‘3달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임금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등이다. 그들은 부조리에 저항하길 포기한 것으로 보였다.

그렇기에, 문제해결의 첫 번째 과제는 유학생 본인의 권리의식 개선이다. 아르바이트 미신고 유학생들이 신고제도 개선 혹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등을 통해 불법 노동자 신세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더불어 문제해결의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선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소수자가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 이문동 지역의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만 봐도 우리학교, 한국외대, 고려대 등 소속 대학이 제각각이고 중국, 베트남 등 국적도 제각각이다. 이처럼 파편화된 그들을 대표해 정치력을 행사할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지난해 대법원은 외국인근로자 노조에 첫 설립 허가를 내린 바 있다. 각 학교의 유학생회, 지역 알바노조가 이 문제에 무력한 이상, 제자리걸음 중인 유학생 불법 아르바이트 문제해결 동력을 마련할 이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본인들이 유일하다.

많은 유학생들이 불법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의 걸음마를 떴고 있다. 낯선 땅에서 부조리를 겪으며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까. 한국행이 일생일대의 모험이었을 그들은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기억할까. 취재를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엔 의문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없이 몇 개 배졌니 마니 하는 모습이 한심해 보인다’는 일갈을 날렸다. 62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과 단위로 커닝하는 곳이 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ㄱㅇ대’ 족보와 관련된 성토도 연번으로 개제됐다. ‘열심히 공부하고 어려운 문제에 최대한 임했는데 몇몇 동기가 족보대로 나와 편했다는 이야기 들으니 바보된 것 같다’(#경희숲_13879), ‘진짜 ㄱㅇ대 교수님을 족보 좀 파괴해 달라, 족보대로 문제 내는 교수님이 문제다’(#경희숲_13880)는 글은 106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학생들은 ‘인맥이 성적과 직결되어서는 안 된다’, ‘과목을 공부하라는 건지, 교수를 공부하라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과대학 구성원이 Space21 사업에 따라 신축 중인 이과대학관 건축 기금 마련중이다.(이과대학 구성원, 건축 기금 기부/대학 홈페이지 Focus, 2016.5.3) 이과대학 이기태 학장과 박정호 행정실장, 임부자 직원과 이과대학 중앙기기센터 과장을 지냈던 미래문명원 남영수 과장은 최근 ‘글로벌 트러스트 단과대학 기금’을 미래위원회 사무국에 전달했다.

총투표, 무시할 거면
할 필요 또한 없다

세시봉

이시은 <편집장>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가 주최한 학생총투표가 마무리됐다. 지난 2일부터 양 일간 실시된 국제캠 학생총투표의 투표인원은 6,318명으로 재적인원의 과반을 상회해, 다소 짧은 투표기간임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학생총투표는 국제캠에선 그리 특기할만한 뉴스는 아니다.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매년 비슷한 안건으로 비슷한 시기에 꾸준히 반복돼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입학한지 6년째 접어드는 기자의 눈에는 벌써 앞으로의 전개 과정이 그려지기까지 한다.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국제캠에서 벌어지는 총투표나 총학생회(총학) 핵심 공약은 본·분교 인식과 이원화 기준에 연관된 것이었다. 이는 2004년도 학생 투표 안건이었던 캠퍼스 명칭 문제부터 지난해 유사·중복학과와 캠퍼스 특성화 화두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았다. 총투표 이후의 상황 또한 매우 유사하다. 모두 과반이상의 투표율에, 80~90%가량의 학생들이 총학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이후 총투표는 한 달 정도 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다가,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논쟁은 사라진다.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매년 반복되는 안건의 총 투표

분명한 효력 갖고 개선돼야

지난 프라임사업 소통위원회에서 나온 서울캠퍼스(서울캠) 한균태 부총장의 발언만 봐도 이러한 이유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국제캠 총학생회가 프라임사업을 통한 서울캠 이공계열 확대에 대해 온라인의 부정적 여론을 전달하자, 한 부총장은 “그러한 댓글들이 국제캠 학생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당장 작년에만도 국제캠 학생들은 총투표에서 해당 사안과 유사한 맥락의 안건에 대해 약 95%의 부정적 여론을 나타낸 바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의 핵심은 ‘소통’과 ‘의지’의 부족이다. 총학은 매년 같은 공약으로 당선되어 비슷한 안건을 총투표에 걸고, 총학과 맞닿아 있는 학교 부서는 ‘해결 못할 문제를 또’라고 생각하며 ‘중장기적으로’ 진행하자 외친다. 이 와중에 위 문제를 정말 알고 느껴야 할 교내 핵심 인사들은 총투표의 사항조차 모르거나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한 부총장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진다.

다음 수순은 정해져 있다. 벽에 가로막힌 총학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곧 학생들 사이에서 마저 관심은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또다시 내년, 내후년으로 미뤄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학교는 10년, 20년을 버텼었다.

학생 총투표의 의미는 크다. 과반을 넘는 의견은 분명 효력을 가져야만 한다. 단순히 ‘학생들끼리 하는’ 의사결정으로 남는다면 이 복잡한 투표과정을 거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관심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결과의 방향을 주시해야만 한다. 10년의 고리, 이제 끊어낼 때가 됐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해경 | 편집장 이시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래7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아르바이트 시간 늘리고 싶어”

(시간당 6,030원)

서울캠 유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골목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고 취기 어린 음식이 회기둥을 메울 때쯤, 기숙사와 하숙집이 빼곡한 이문동은 조용하다. 그나마 이문동 골목을 밝히고 있던 카페불빛도 사라지면 눈에 들어오는 것은 편의점 간판뿐이다.

늦은 시간 이문동에 홀로 남아있는 중국인 A. 그녀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밖에 안 돼 한국말이 서툰 그녀는 늦은 시간 드물게 방문하는 손님들 앞에서 도도룩 입을 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아르바이트 중에도 놓지 않는 한국어교재는 잔뜩 해져 있다.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우리나라에 왔다는 그녀는 우리학교 1학년이다.

A는 아르바이트 시간에 학생기자라며 다가가 알지 못할 말을 캐묻는 남자 때문에 당황스러운 기색이다. 그 남자가 묻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공부하던 한국어교재를 내밀었고, 글을 동원해 더듬더듬 대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대화내용이 주목을 끈다. “시급이 얼마냐”고 묻는 기자의 말에 그녀는 4,800원을 말했다. A가 오토이 뜬 눈으로 밤을 보낸 대가로 받는 돈이 43,200원이라는 말이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야간수당을 적용해 임금을 계산하면, 그녀가 본래 받아야 할 돈은 최소 75,625원이다. 그런데 A의 말에 따르면 “낮 시간에 일하는 중국인 친구는 4,500원을 받는다”고 한다. A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의 야간수당은 300원인 셈이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왜 하는지, 시작한지 얼마나 됐는지 등을 묻던 기자는 “최저임금보다 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반복해 묻다, A가 통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곤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사실, 출입국관리법상 한국에 온지 6개월 이상된 유학생만 아르바이트가 허가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시작 당시 한국에 온지 4개월째였던 A의 아르바이트 행위는 불법이다. A는 어쩌면 43,200원조차 못 받을지 모른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앞 사거리 근방에서 일하는 유학생 B도 비슷한 사정이다. B는 베트남에서 왔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시간 당 5,000원을 받고 일하는 그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편의점이 학교랑 가깝고 사장님이 친절해 일에 만족한다”고 말한다. 낮에 손님이 많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는 이유로 낮에 일하는 사람들이 시급을 더 많이 받는 요상한 편의점에서, 그는 일한다. 잘 시간이 없어 강의가 없는 시간을 짬뽕이 쪼개어 선업을 자야 하지만, 생활비를 생각하면 일을 그만둘 수 없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B는 오히려 “학부에 다니는 친구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부럽다”며 “여유가 생긴다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릴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시종일관 웃는 얼굴로 일하는 B. 그의 표정을 보아하니 그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5,000원짜리 시급은 이미 고민거리가 아니다.

불법아르바이트 적발당한 적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만연

외국인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학교의 직인이 포함된 ‘시간제취업 확인서’와 함께 근무처, 근무시간, 시급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많은 유학생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다. 신고서를 허위 기재했거나,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라는 뜻이다.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을 넘어, 임금체불·악의적 신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불법취업’인 것이다. 관련 법

률 상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취업을 알선 혹은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일부 유학생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가령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개인의 인식부족으로 부조리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C는 B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왔다. 그가 일하는 편의점은 새벽까지 고성이 끊이지 않는 외대앞역 근방 유흥가에 위치해 있다. 술집이 밀집돼 있는 곳에서 야간에 일하는 탓에 그는 하루에도 여러 명의 취객을 상대한다.

그가 그 대가로 받는 시급은 6,000원. 야간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나 그는 적은 임금 탓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르바이트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다. 학교의 확인을 거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시간제취업 확인서’에 시급 기재란이 있기 때문이다.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를 솔직히 적어내는 것은 곧 업주를 고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불법 아르바이트임을 적발당한 적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느라 해고당할 생각은 더더욱 없다. C는 단지 시급이 적은 것이 억울하다.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하기 힘들고, 다른 업

장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항의할 생각은 없다. C는 지금도 적은 임금 탓에 아르바이트를 신고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저임금이 굳어지는 쳇바퀴를 달리고 있다.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불이익 받을까 두려워 적극적 문제제기 못해

물론, 일부 업주들은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C의 고용주는 “위치적인 특성상 외국인을 많이 고용했을 뿐, 저임금을 이유로 외국인을 고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같은 시급을 준다”고 못 박았다.

일부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신고하지 않는 것에는 제도상의 이유도 한 몫 한다. 신고를 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 데다, 미신고 아르바이트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다. ‘유학생 아르바이트 신고제’의 홍보도 부족하다. 총유학생회 왕건(무역학 2014) 회장은 “유학비자(D2비자)를 가진 학생들은 한 주에 2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데, 생활비 부담이 큰 탓에 20시간보다 많이 일하고 싶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왕 회장은 “총유학생회에서 학생들에게 유학생 아르바이트 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나 모

두에게 전달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총유학생회는 오는 23일 변호사조병 법률특강을 연다.

지역 내 시민단체에서 문제해결에 나선 적이 있지만 역부족이었다. 알바노조 경희대분회는 2년 전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찍이 문제를 발견했다. 알바노조 경희대분회 신소진(정치외교학 2013)은 “2014년 조사 당시에도 그 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시간당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의 시급을 받는 외국인재학생이 많았다”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제도이탈이 불가피한 유학생들을 일부 악덕업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바노조 경희대분회는 당시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악의적 신고 등으로 일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불이익을 겪을 것이 우려되어’ 문제제기를 포기했다.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겪는 부조리는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 길게는 4년이면 한국을 떠나거나, 아르바이트생 신세를 면하는 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탓일까. 혹은 유학생들의 생활사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행정제도 탓일까. 근로자의 낯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을 조용히 지나쳐갔고,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은 지금도 골목골목에 홀로 남겨져 있다.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004 ~ 2007학번 재학생 중, 급학기 현재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2.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가. “대학영어” 나. “사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은문지성법”
다.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3. 면제기준 및 자격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공인영어시험성적으로 계절별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특례입학자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 이수자
5) 국제교류 차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면제종류	계열	대학	면제기준				면제내용
			TOEFL CBT IBT	TEPS	TOEIC	G-TELP	
공인영어 시험능력자	외국어계열, 사회계열	외국어대학, 국제 경영대학	207 이상	76 이상	600 이상	700 이상	66(Leve2) 이상
	공학계열 자연과학 계열	전지정년대학,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우주과학과)	193 이상	69 이상	551 이상	650 이상	57(Leve2) 이상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응용과학대학 (응용화학2과)	190 이상	68 이상	530 이상	640 이상	56(Leve2) 이상
	예체능 계열	체육대학, 예술디자인대학	147 이상	51 이상	400 이상	510 이상	57(Leve2) 이상

- 외부 공인기관 자격증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신청서와 성적표(원본)를 제출한다.
-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 Intensive Program 이수자들은 증명서류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환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며, 통과자에 한하여 과목을 면제한다(신청 기간에 제출)
- 공인인증(ASBEE)대상자는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면제종류	자 격	면제내용
국제화추진 전형입학자	국제화추진 TOEFL, TOEIC 전형 입학자	과목면제
특례입학자(영어권)	영어권 국적 외국인 또는 영어권 교포자녀, 영어권 재외국민	과목면제
Intensive Program 이수자	국제교류센터가 인정하는 - 재학 중 영어권 학점 교류자이학 연수자로 선발된 자 - 영어권 국가에서 학점 인정 가능한 영어 어학연수/교정/연구/대학부설 및 공인 교육기관 Program에서 48시간(3시간x16주) 이상 이수한 후 고급 성적을 취득한 자	과목면제
	평생교육원 DEEP, 국제교육원 LEAP, REACH 집중 프로그램 과정을 출석률 80% 이상, 성적상급 수준으로 수료한자	과목면제

- 나. 외국어대학 대학영어 / 전문영어 이수 면제기준
※ 외국어대학 핵심교양 이수면제 예외사항
- 외국어대학은 학과적 특성에 의해 특정과목 수강으로 ‘대학영어’와 ‘전문영어’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 자신의 재전공이 아닌 타 전공의 외국어/2단계를 이수하는 것으로 핵심교양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대체교과목]		
제 1 단계	제 2 단계	총 이수학점
초급중국어회화	초급중국어회화2	6
일본어강독	일본어강독2	6
스페인어1	스페인어2	6
러시아어1	러시아어2	6
초급프랑스어1	초급프랑스어2	6

※ 상기과목으로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외국어대학 소속 학생은 외국어대학 행정실(T031(201~220)에 별도 접수 바랍니다.

- 다. 사고와 표현 영역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1단계 :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이수면제 기준표]
*신청서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제출한다.

단 계	내 용	평가 방법	학 점	비 고
1단계	독후감평가 (관중도서 중 3편을 읽고 독후감 제출)	독후감 80점 이상 통과자에 한하여 구술시험	P/F로 부여	1단계 합격시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글쓰기 시험 (교재 내용 이해도 평가 / 논술 시험)	80점 이상 통과		

라. 전산영역 이수면제 기준 및 자격 :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4. 신청기간: 2016.06.01(수) ~ 2016.06.10(금) 17:00 까지

5. 신청장소: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6. 신청자 유의사항
가. 2016학년도 1학기 현재 상기과목을 수강 및 이수한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다.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031-201-3401~5)

7.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양식은 경희대학교 학사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증명서류 원본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2016 Kyung Hee Repertory Dance Project

일시 : 2016. 5. 23(월) ~ 26(목) 5pm

장소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관 다목적홀 (102호)
Dance & Performing Art Hall, School of Dance, KHU, Seoul

주최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School of Dance, Kyung Hee University
후원 : 무용학부 48대학생회 · 문화아이템팩토리센터 Contact : 02)961,0539

기획

‘통섭적 인재’ 가물가물 ... 설립 목적 상실한 자율전공학과

자율전공 정체성 논란

조민호 기자 luve5678@khu.ac.kr
최병현 기자 chbh102796@khu.ac.kr

2005년 이후 대학가에서는 통섭과 융합 교육이 중요한 화두로 부상했다.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지식의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의 책이 이른바 현대의 고전으로 회자되었고, 어느새 ‘다양한 학문을 두루 섭렵한 통섭인재’가 각광받게 됐다. 대학들은 ‘창의적 융합인재를 길러낸다’는 슬로건을 내걸며 ‘자율전공학과(자전) 신설’에 열을 올렸다. 우리학교 또한 2008년부터 이른바 ‘통섭 열풍’에 뛰어들었고 당시 기획위원회 사무국은 특별팀을 꾸려 자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듬해인 2009년 3월, ‘대학가에 자율전공학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학교 측의 포부와 함께 서울캠퍼스(서울캠) 187명, 국제캠퍼스(국제캠) 124명의 ‘첫’ 자전 신입생들이 입학했다.

서울캠 자전은 초기에는 수시, 정시를 합쳐 190명 가량을 선발했으나 해가 갈수록 조금씩 인원수를 줄이며 축소되는 과정을 거쳤다. 2016년에는 수시 65명, 정시는 일반수능 중심 전형으로 41명을 선발했다. 국제캠은 124명으로 시작해 조금씩 인원을 줄이다, 유사 학과들을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2012년의 마지막 신입생들을 끝으로 2013년 3월에 폐과했다. 당시 국제캠 자율전공 학부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2012년에 교육부에서 유사학과를 정리하라는 권고가 내려왔기에 자율전공학부를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서울캠 자전은, 입학생들이 특정 전공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두 개의 학기를 수료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때 학생들은 인문학, 경영학, 기초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폭넓게 이수하면서 자신의 흥미와 소질을 탐색한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은 전공배정을 신청해 의·약학계열(약과학과 제외), 간호계열, 예체능계열, 폐과된 전공을 제외한 전공으로 소속을 확정하게 된다. 만약 타학과로의 전공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단일 전공으로 자전 내 ‘글로벌리더’와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2학년 말에 다시 타 학부, 학과, 전공을 선택하거나 해당 전공에 남을 수 있다. 설립 취지대로라면 자신의 적성도 찾고, 여러 분야의 학문을 골고루 배우며 통섭적, 융합적 사고방식도 키울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두 학기 동안 소속 전공 없지만

학생들, 서둘러 전공과목 이수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학생들은 한 학기에 평균 수강신청 가능 학점으로 18학점을 부여받는다. 자전 학생들은 2개 학기 동안 총 36학점 중 1학년 필수교양인 글쓰기 1, 대학영어, 인간의 가치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 시민교육(총 13학점)을 제외한 23학점을 전공으로 수강할 수 있다. 원래의 자전 설립 취지대로라면 이 학점을 여러 분야의 학문을 골고루 배우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자전 학생 중에 ‘위와 같이’ 전공을 폭넓게 듣는 학생은 많지 않다. 오히려 서둘러 전공을 접착어두고 그 학과 수업을 집중적으로 이수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2개 학기가 지난 뒤 전공배정이 이루어지면, 배정된 전공 이외의 타 전공은 교양선택 중 ‘자유이수’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3학점 이상만 수료하면 되는 자유이수 특성상, 다양한 학과의 전공을 수강할 경우 최대 20학점을 자유이수로 초과 수강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졸업을 위해 필요한 최저 학점은 130학점이다. 한 학기 평균 수강신청 가능 학점인 18학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



“
‘자율전공학’에 대한 학문적 필요성이나 깊은 이해도 없이, 단지 법과대학 폐지에 대한 ‘정원 보존’의 대안으로 각 대학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 자율전공학과(학부), 혹은 자율전공학부이고, 이로 인해 해당 분과의 ‘학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만은 없다.

”

학기 동안 144학점만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로 인해 졸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2개 학기 동안 자기 적성과 흥미와 재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자전 재학생이 ‘전공배정’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학과 개수(2016년 1학기 기준)만 33개다. 23학점으로는 각 단과대 당 한 강의도 못 듣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5 학년도에 자전 학생들의 전공배정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23개 전공 중, 한 명이라도 배정된 전공은 총 12개였다. 즉, 나머지 21개의 전공에는 자전 학생들이 배정되지 않았다. 4학기를 수료하고 다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글로벌리더’, ‘글로벌비즈니스’ 학과와 5명 미만이 선택한 학과를 제외하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6개로 압축된다. 경영학과(35명), 회계세무학과(13명), 언론정보학과(9명),경제학과(7명), 정치외교학과(7명), 행정학과(6명)가 그것이다. 이는 자신의 흥미와 재능보다는 특정 학과에 대한 선호로 인해 선택 현상이 발생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학과 내 트랙들

기존 교내 과목들과 큰 차이없어

타 단과대학 이외에도 학생들이 전공 선택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면 자전 내 ‘글로벌리더’와 ‘글로벌비즈니스’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은 ‘국제적인 인재를 목표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당 커리큘럼에 명시하고 있지만, 커리큘럼 내 많은 과목은 경영대학에서 제공하는 과목과 거의 일치한다. 이로 인해 경영대 홈페이지 졸업요건 기준에서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을 따로 명시할 정도다. 글로벌리더 트랙 역시 다르지 않다. 글로벌리더 트랙에서 전공기초로 인정되는 과목은 매우 한정돼 있으며, 전공필수로 지정된 ‘헌법’, ‘형법총론’, ‘민법총칙’등의 과목은 과거 법과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던 과목이다.

또한, 학부가 개설된 초창기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은 학과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 해외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위를 복수로 인정해 주겠다는 제도가 있었지만 짧은 기간만 운영된 뒤 폐지돼 해당 제도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 2012년 자전에 입학한 한 학생은 “입시 준비 당시 자전이란 학과 자체가 생소해 정보

를 모으던 중, 경희대의 비즈니스 트랙에서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를 복수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을 발견했다”며 “제도에 관심이 많았었지만 학위 제도가 정확히 어떤 체계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다. 또 입학 당시 선배로부터 학위 제도가 거의 폐지됐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처럼 트랙 내의 차별점과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타과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베껴와 적용했기 때문에 자전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트랙이 ‘다양한 과목을 접하며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반(反)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초심을 잃고 문제점을 방관한 채 자전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태도에 대해 학생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박하현(자율전공학 2012) 군은 “자전을 설치해놓고 설립취지나 목표를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학사당국을 보면 차라리 학과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타 전공 수업을 무조건 들을 수도 없으며, 정해진 전공기초 수업만 들어야 한다”는 그는, 다른 전공을 선택하여 전과했을 때 들었던 전공기초는 모두 자유이수로 전환되기 때문에 커리큘럼 상으로 자전 학생이 받는 피해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전 행정실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학생들이 유예기간을 제대로 쓰지 못해 자전의 진로 탐색의 측면에 반한다는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자율전공학과가 지향해 나갈 정체성, 커리큘럼’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전 측은 “행정상으로는 커리큘럼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상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행정실 측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자전의 설립과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2009년 정부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폐과된 법과대학 인원(T.O.)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율전공학과가 설립됐다는 것이다. ‘자율전공학’에 대한 학문적 필요성이나 깊은 이해도 없이, 단지 법과대학 폐지에 대한 ‘정원 보존’의 대안으로 각 대학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 자율전공학과(학부), 혹은 자율전공학부이고, 이로 인해 해당 분과의 ‘학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만은 없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엔 학과 소개에 ‘법과대학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같은 점은 실제 학생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자전에 다니는 한 학생은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한다.

학문적 깊이 없이

‘법대 공백 메우기 용’ 지적도

“글로벌리더전공에 남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로스쿨 진학과 공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법과대학 전공수업이 축소되어 가고 있고, 한 학기에 개설되는 강자가 한정적이어서 글로벌리더 전공의 특색과 이점이 없다. 게다가 강자가 열린다고 해도 커리큘럼과는 동떨어진 강자다.”

그렇다면 타 대학 자전의 경우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정규 2학기를 수료한 후, 전공을 선택한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학생설계전공’을 주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학생설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학문) 융합을 토대로 한 교과과정으로, 학생 스스로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반면 자전 제도를 폐지한 대학도 있다. 바로 연세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다. 자전이 ‘다양한 전공 수업을 통한 학문의 융합과 유예기간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개설됐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부 학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사회 수요에 맞는 통섭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 출발한 자전은 특색과 정체성을 잃고, 학생들에게 타 과로 진학하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만 인식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유독 대학 측은 자전 내의 정체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장 자전 내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특정 진로를 겨냥한 트랙이나, ‘전공 쏠림’ 현상에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 측이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초창기의 설립 이념을 재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자전은 결국 ‘용두사미’형 분과로 남게 될 것이다.

우정장학, ‘행정’ 아닌 ‘취지’ 쫓아야

상이한 우정장학 기준, 이유는?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양 캠퍼스의 소득분위별 우정장학금 지급규정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다시인사이드 경희대 갤러리’,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경희대학교 에브리타임’ 등 학교 관련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개강 전까지 지속적으로 양 캠퍼스의 우정장학금 지급액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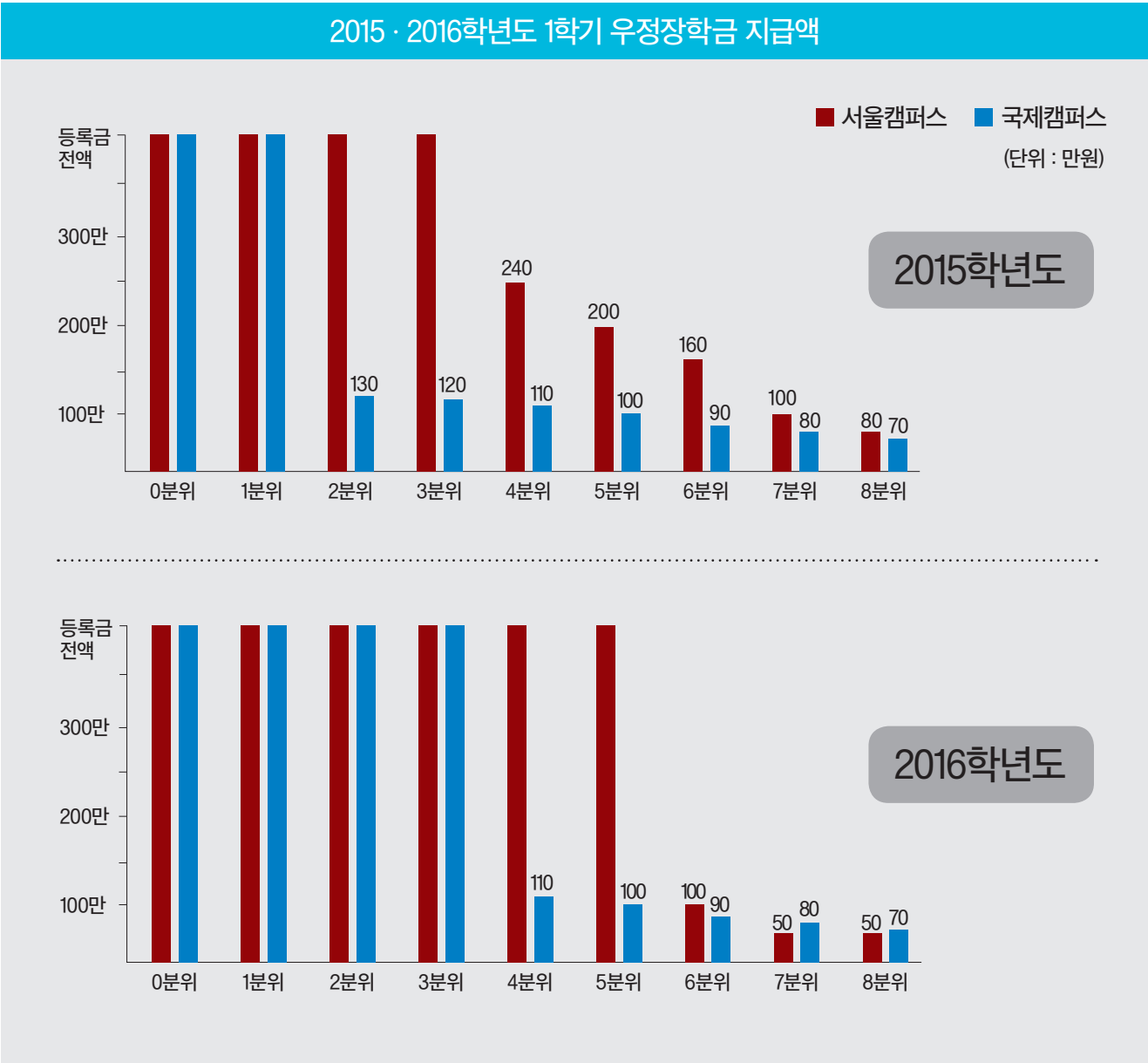
우정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 후 산정된 소득분위에 대응해 가계곤란 대상자를 상대로 우리학교 장학팀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복지 장학금이다. 현재 우정장학금은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국제캠)의 장학팀에서 0분위에서 8분위까지의 소득분위에 따라 대상자에게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30일 작성된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의 12,421번째 게시물에서는 이 우정장학금에 대해 “2015년도 우정장학 지급안을 보니 국제캠과 서울캠 간의 장학금 배분이 심하게 다르고 실제 소득분위가 똑같아도 주는 금액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학기도 양 캠퍼스 우정장학금 서로 달라

이 같은 문제제기는 사실로 드러났다. 먼저 서울캠 총학생회(총학)가 지난 2015년 2월에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2015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서울캠에서는 직전 학기 학점 평점 2.4 이상을 기준으로 소득분위 0분위에서 3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과 우정장학금을 합쳐 등록금 전액을 감면했다. 학점 평점 2.0~2.4 구간에서는 소득분위 0분위부터 3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80%를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국제캠은 사정이 달랐다. 직전 학기 학점 평점이 2.0 이상일 경우 0분위에서 1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만 등록금 전액을 감면했고, 2분위는 130만원, 그리고 그 뒤로는 1개 분위 당 10만원씩 차감한 액수로 우정장학금이 지급된 것이다.

우리신문은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015년도 우정장학금 지급액에 대한 자료를 양 캠퍼스 장학팀에 요청했다. 하



지만 이 자료를 받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국제캠 장학팀은 자료를 바로 건네준 반면, 서울캠 장학팀은 지난 3월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가 뒤늦게 자료를 전달했다. 자료 공개를 거부할 당시 서울캠 장학팀의 김선희 계장은 “공적인 일이 아니라 함부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는 서약서가 있어 소득분위와 관련된 자료는 외부에 노출시킬 수 없으며 장학 대상자 산정, 장학금 분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던 서울캠 장학팀의 입장은, 3월 직원 인사이동 이후 바뀌게 된다. 지난 3일 재문의해 본 결과, 우지연 과장은 “그때 알려드리지 못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며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우 과장은 “서울캠 총학

에서 (온라인상)에 올린 자료를 직접 봤는데, 게시물에 올라온 지급안대로 우정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양 캠퍼스 장학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로 양 캠퍼스 우정장학금 지급액은 상이했다. 먼저 이번 학기의 서울캠 우정장학금 지급액은 0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전액을 감면했고, 6분위 학생에게는 100만 원을, 7, 8분위 학생에게는 50만 원을 우정장학금으로 지급했다. 반면 국제캠은 서울캠과 달리 0분위부터 3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전액을 감면했고, 4분위 학생에게는 110만원을, 그 이후로는 1개 분위 당 10만원씩 차감해 우정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지급내역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서울캠 장학팀은 “잘 모르겠다”며 “서울캠과 국제캠 지급기준을 정하는 프로세스가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캠 장학팀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캠 장학팀 최문선 계장은 “산술적으로 보아도 인문·사회계열의 학생이 더 많은 서울캠은 국제캠에 비해 평균 등록금 액수가 적다”면서, 이 차이가 ‘전액감면’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평균 등록금이 약 314만 원인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많은 서울캠의 경우엔 소득분위가 1분위면 우정장학을 70만 원만 지급해도 전액 감면이 될 수 있지만, 평균 등록금이 약 430만원인 아공·예체능 계열 학생이 많은 국제캠의 경우엔 소득분위 1분위

에 대해 최소 149만 원의 우정장학이 지급돼야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은 양 캠퍼스 간 소득분위 차이이다. 최 계장은 “서울캠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국제캠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캠 학생들의 소득분위와 관련된 자료를 서울캠 장학팀 측에 요청했으나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보기 위해 우리신문이 양 캠퍼스 장학팀에 ‘2015학년도 소득별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 자료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국제캠 장학팀은 자료를 제공했지만, 서울캠 장학팀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캠 장학팀의 김 계장은 “업무적인 일이 아니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로 인해 양 캠퍼스 학생들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동일한 자료에 대해 “개개인의 소득분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상관 없을 것”이라는 국제캠 장학팀 측의 입장이나 “민감한 자료이긴 하나, 학교 측으로부터 받으면 사용해도 괜찮다”는 한국장학재단 측의 입장과는 크게 상반된 것이다.

우정장학, 행정시스템에 발목 잡혀 취지 무색

우정장학을 둘러싸고 이번에 학교가 보여준 모습은 학생들을 위한 모습이라고 보기 힘들다. 담당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거나, 정당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의 모습은 현재 우정장학에 대한 우리학교의 행정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학규정에 따르면 본래 우정장학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가정환경이 곤란한 학생이나 천재지변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제도이다. 하지만 지금 양 캠퍼스가 우정장학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문제가 있음에도 해결책을 강구하기는 커녕 ‘행정’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가 전도된 모습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우정장학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소득분위가 낮으면서 등록금 부담이 높은 학생들이야말로, 이 장학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다. 서울캠과 국제캠으로 나뉘어진 예산의 벽을 이유로 이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처우를 감수하고 있는 현실은 우정장학의 취지가 행정 시스템에 발목 잡혀 무색해지고 있다는 방증에 다름 아닐 것이다.

2016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2016학년도 1학기 자유선택과목 "사회봉사1,2,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 가능 학점

가. 성적부여 방식: P/F (2014학년도 부터 P/F 모두 성적부여 가능)

나. 최대 취득가능학점: 학기당 1학점, 총 2학점 (단,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대 3학점)

● 사회봉사 학점취득 변경내용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항목	2012~2학기 이전	2013~1학기부터
취득요건	- 온라인캠퍼스 이수 후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 재·휴학에 관계없이 입학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인정기준	국공립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 불가능 ① 교외봉사: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서울동행프로젝트(http://donghaeng.seoul.kr),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www.vms.or.kr)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② 교내봉사: 교내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주관하는 봉사 (단, 취업진로지원센터와 사전협의의 외야하 함)를 실시한 경우 ③ 헌혈: 입학 후 실시한 본인의 헌혈증서 원본, 사본 및 VMS 헌혈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문의 : 취업진로지원처 (031-201-3061)

● 사회봉사 학점인정신청 및 실적등록신청

구분	교과목 이수 (학점인정신청)	실적등록
대상	2016-1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학생	전체 재학생 및 휴학생
서류 제출기간	2016년 5월 29일(월) ~ 2016년 5월 26일(목) 17:00까지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일체 서류를 받지 않음	
제출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1. 실적등록 신청서
	2. 봉사활동확인서 원본 및 사본	
	3. 소고문	-

-제출서류양식은 <http://service.khu.ac.kr/> 접속 후 정보마당-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회봉사 관련 상세사항은 공식홈페이지 <http://www.khu.ac.kr> -[공지사항]-[일반]에서 반드시 확인

● 기타 세부사항

가. 봉사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한다. (같은 날 실시한 헌혈+봉사활동 실적 제출할 경우도 적용)

나. 헌혈증서 기증을 통한 봉사시간 인정은 입학 이후 실시한 헌혈에 한하여, 교과목 이수에 요구되는 32시간 중 총 16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며 연도별 인정시간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06. 3. 1~2011. 2.28	2011. 3. 1 이후
헌혈증 1장 당 인정시간	15	8
		4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실입니다.
벗꽃이 피어나는 이 봄, 행복한 대학생활하고 계신가요?

학생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친구들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하고 싶은 친구들

자신을 좀 더 이해할길 원하는 친구들

연례 학생생활상담실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1. 자신을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2.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비밀 보장이 되나요?

검사해석 및 개인상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은, 비밀 보장을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1) 진로 및 학습검사
Holland 적성탐색검사
능력, 적성, 성격 및 가치관을 고려한 나의 진로와 열 알아보기
연재? 나의 진로 및 적성이 궁금할 때 알아보는 검사
U&I 진로탐색검사
진공 및 흥미분야와 자신의 성격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연재? 진로출마와 자기성향이 맞지않아 진로선택이 고민될 때
U&I 학습유형검사
학과과 관련된 성격, 행동을 토대로 자신의 학습유형 파악하기

연재? 공부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때

2) 심리 및 성격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MMPI-2]
자신의 행동 및 성격특성과 적응 정도에 대한 이해를 도움
연재? 나의 현재 심리상태가 궁금할 때 (무술, 불안 등)
기질 및 성격검사 [TCI]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평가하여 나의 생각과 감정, 대인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도움
연재? 자기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성격유형검사 [MBTI]
자신의 성격적 강점을 알고 성격의 장·단점을 알아볼
연재?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심을 때

상담받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내 문제를 직면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열여섯 해의 저 온 선생님과 진솔한 관계를 맺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는 좀 더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잘 알아차리고 존중해주어줬다는 다짐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었고 자신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시 간: 오전 9시~ 오후 17시까지(점심시간 12~13시)
장 소: 학생회관 218호 학생생활상담실
연락처: 031) 201-2806
이메일: counsel@khu.ac.kr
예약방법: 전화·나 메일, 직접방문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학생생활상담팀

기획



‘버스기사 vs 학생’ 소통 간담회 열려

국제캠 버스기사·학생 갈등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학생들과 버스기사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학생회x버스기사님 소통의 간담회’가 지난 25일 열렸다. 총학생회(총학)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버스기사 욕설 문제 ▲교내 버스 탑승 질서 문제 등에 대해 총학, 학교, 버스업체의 3자 대면이 이뤄졌다. 버스업체 측에서는 경기대원고속 직원 2명, 용남고속 직원 4명이 참석했고, 학교 측에서는 총무팀 직원 2명, 학생지원처 직원 1명, 총학생회에서는 3명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우리학교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최근 교내 버스 기사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페이스북에는 버스기사가 외국어대학 정류장에서 전화를 하며 올라온 학생에게 ‘버릇이 없다’며 다시 내리고 다시 타게 한 동영상이라 올라와 논란이 됐다. 또한 학생들은 교내에서 승차하는 학생들을 ‘무임승차 범죄자’ 취급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총학 김건우(전자·전과공학 2011) 대외협력처장은 “최근에 버스기사님들과 학생들 간의 탑승관련 갈등이 빚어져 기사님들 및 버스업체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며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고 이후 학내 탑승 질서 문제와 인식차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버스업체 측에서는 입을 모아 탑승과 정 상에서 무질서 때문에 운행 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M5107 버스를 운영하는 경기대원고속 주태무 팀장은 “학생들이 탑승과정에서 무질서하게 버스를 타려고 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더러 버스 운행에 애를 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총학 측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에는 동의했다. 총학 박수지(산업경영공학 2014) 부회장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버스를 탑승하다보니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고, 총학 김병경(체육학 2009) 회장은 “현재 아침에만 한 줄 서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점심시간에도 한 줄 서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버스기사들의 인식의 차이로 인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 부회장은 “학교가 버스업체에 차고지를 제공하면서 학내 운행을 학생들의 권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5100번 버스를 운영하는 용남고속 이영식 팀장은 “학생들 중에는 학교가 업체에 차고지를 무료로 내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업체는 현재 대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버스를 운행 중에 있

다”고 밝혔다. 또한 이 팀장은 “버스가 차고지에서 출발할 때 1~2분이 지연되면 서울에서는 10분 이상 늦어진다”며 학생들에게 질서를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한 줄서기 외에 교내 버스정류장의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도 논의됐다. 용남고속 이 팀장은 “학생들의 무질서한 부분은 의식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관련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 생각된다”며 “혼잡한 시간대에 2줄로 나눠 탑승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에서는 버스업체에 대해 욕설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생지원처 김종민 계장은 “학생들이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욕설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버스업체 측도 이에 동의했고, 용남고속 이 팀장은 “학생들 불만만 수렴할 것이 아니라 버스기사들의 불만도 확인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하기 위해 본사에서 나온 용남고속 사업부 이종규 부장은 “문제의 원인은 서로에 대한 예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학생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버스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버스기사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종합한 2차 간담회는 5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인류에게 미래가 있는가?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특별 강연회
최재원 기자 jankin1997@khu.ac.kr

【서울】지난 28일,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답>하고 위대한 질문>의 저자, 유발 노아 하라리(Yuval Noah Harari) 교수의 특별 강연회가 개최됐다. 인류 전체의 위기와 불리는 여러 문제들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의 미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위기에 처한 현재의 문명을 지속가능한 문명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다. 현재 우리 대학과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는 ‘세계지성에게 묻는다: 문명전환과 아시아의 미래’ 강좌시리즈를 공동준비하고 있다. <사피엔스>를 통해 ‘인류에게 미래가 있는가?’를 묻고 답하는 유발 하라리 교수가 강좌 시리즈의 가장 첫 번째 순서에 배치된 이유다.

강연회 1부에서 유발 하라리 교수는 ‘Does history have a direction?’을 주제로 역사를 바라보는 그만의 독특한 프레임을 제시, 거시적인 인류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강연을 열었다. 그는 우리가 과거에 비해 에너지를 60배 더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60배 더 행복해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라리 교수는 새로운 해답을 제시한다. 그는 개인이 각자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보다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이나 권력, 명예와 같은 물리적인 요인을 쫓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더 깊은 수준의 행복과 불행은 부나 명예 등의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행복 위해선
물리적 요인보다 ‘내면’이 중요

또한 그는 공학 기술의 발달이 곧 다가올 미래 인류의 지적, 정서적 능력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 긍정적인 한편, 역사상 현 인류만큼이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세대가 또 없을 거라는 식의 우려를 드러냈다. 그에 따르면 현 인류는 창조와 파괴의 권능을 지닌 소위 신적 존재가 됐지만, 스스로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신적 지위만을 지키기 위해 사피엔스종 이외의 지구 생명체에게 흥기



를 휘두르며 앞으로만 내달리고 있을 따름이다. 그는 작금의 시대에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생태계 전체를 돌보는 것, 진정한 행복을 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임을 강조하며 1부를 끝맺었다.

이어진 2부는 김민웅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전체 사회를 보았으며, 이택광 교수(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안병진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 김윤정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 수석연구원으로 이뤄진 3명의 패널과 유발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으로 꾸러졌다. 이들이 던진 여러 질의 중 정치와 교육문제에 관한 것이 유독 두드러졌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작금의 정치구조는 산업사회의 대응물로 나타난 20세기의 유산일 뿐”이라며 “21세기의 바이오기술이나 인공지능,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가 미국 대선 후보들에 의해 거론되고 있지는 않으나 그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느냐”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날의 문제들은 어떤 특정 나라가 단독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지구상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동참할 수 있는 ‘지구적 정부’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교육문제에 대해 ‘정답’만을 쫓는 교육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게할 뿐이며 이는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90%가 미래에는 쓸모없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청중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2040년의 미래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하고 스스로 계속 배워나가는 재발견과 재탄생의 능력이 필요하다”며 “때문에 좀 더 휴식하고 좀 더 노는 것이 ‘정답’을 아는 것보다 더 유용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지성에게 묻는다: 문명전환과 아시아의 미래’ 프로젝트의 추후 강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5월 말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16년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2016년도 국제캠퍼스 예비군 기본훈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대상자는 훈련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가. 훈련대상 :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입된 예비군 자원 중 1 ~ 6년차 예비군 전원
나. 훈련장소 : 용인시 예비군훈련장(용인시 차인구 윤학동 묵동로 87 / 55사단 172연대 3C대대)
다. 훈련일시 : 대학(학과)별 훈련 일정

훈련일자	훈련 대상 학과	시간
5월27(금)	○ 국제대학 ○ 국제·경영대학 ○ 응용과학대학	09:00 ~ 18:00
5월30(월)	○ 체육대학	
5월31(화)	○ 생명과학대학 ○ 예술·디자인대학	
6월1(수)	○ 동서외국어학과 ○ 전자정보대학	
6월2(목)	○ 공과대학 : 기계공학, 원자력공학과, 화학공학과	
6월3(금)	○ 공과대학 : 간축공학, 건축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 산업경영공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 환경화학공학	
6월10(금)	○ 특수대학원(교육, 아트퓨전, 테크노경영)	
6월11(금)	○ 교직원 ○ 외국어 대학 ○ 일반대학원 ○ 전문대학원(국제, 동서의학, 체육)	

※ 개인별 대상자 명부는 훈련 2주 전에 대학(원)별 학과 행정실 및 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

2. 준비물
가.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장갑을 규정대로 착용할 것(미 착용시 입소 불가))
나.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 지참자는 입소불가

3. 교통 안내
가. 학교지원 차량(임대 버스)을 강남역 및 국제캠퍼스 정문 앞 2곳에서 운용
1) 강남역 : 7번 출구 전방 200m(6번 출구 후방 50m) 우리은행 365코너 앞 에서 07:40 출발
2) 국제캠퍼스 : 학교 정문에서 07:50 출발
나. 개인 입소자는 학교홈페이지 훈련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여도를 참고하여 09:00 이전까지 훈련장 위생소에 도착

4. 유의 사항
가. 대상자 명단에 누락된 자는 임의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예비군 연대본부에 확인하여 대상자명단에 포함 후 훈련에 참가하여야 훈련이 유효함
나. 개인 사물보관함에는 분실 우려가 있으니 귀중품(시계, 금전, 반지 등은 보관하지 않 것)분실시 개인 책임을 명심할 것
다. 대학(학과)별 훈련일정은 훈련부대의 수용 인원을 고려한 것으로 훈련일자 변경은 절대 불가함.
라.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자는 예비군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 단위훈련을 신청하여 훈련을 이수하거나 훈련연기 신청(관련서류 첨부)을 필히 할 것
라. '6년 훈련 시 입소통제 지침 : 09:00이후 도착자는 입소불가 하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됨.
마. 기타 훈련에 의사사항이 있을시 예비군 연대본부(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 바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2016학년도 2학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박사 과정

1. 모집 분야 : 국제통상협력학과 / 국제개발협력학과 / 국제경영학과
2.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0명 (국제개발협력학과에 한함)

3.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학부 예정자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학부 예정자

4. 전형방법
국내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턴부(40%), 영어작문시험(20%)
해외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턴부(60%)
※ 해외거주 지원자 인턴부는 전학로 진행하며, 결과는 별도 통지

5. 전형일정
서류접수 : 2016년 04월 18일(월) ~ 05월 11일(수) 17:00 (우편 수신기준)
국내 거주자 인터뷰 및 영어작문시험 : 2015년 05월 21일(목) 시간 우후공시
해외 거주자 인터뷰 : 2016년 05월 16일(수) ~ 05월 20일(금) 기간 중 개별안내 (예정)
합격자발표 : 2016년 05월 30일 월요일(예정)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작성 포함)
· 전학전 성적증명서 1부 (평균, 평균 및 백분율 성적 기재)
· 추천서 2권 1부씩 (국문가능, 자유양식)
·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부등록번호 기재)
· 변경할한 사진 1매 (3cm×4cm)
· 전 학료 : 70,000원 (E-mail 및 우편접수 시 온라인 입금)
※입금계좌 : 하나은행 906-91002-76604

※ 해당자에 한함
· 공인영어성적 소지자 가산점 부여, 성적표 1부
· 국문/영문 번역 공증서(졸업증명서, 전학전 성적증명서) *영미권 미외의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 영문 학업연구계획서(자유양식, 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 영문 이력서 (자유양식, 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7. 원서접수
- E-mail 접수 : gsp@khu.ac.kr
- 우편접수 :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실 [봉투에 '입학원서 제출' 기재 후]

다양한 장학 혜택

□ 입학 및 재학 시 성적에 따라 수업료 100 ~ 50% 면제
□ 학식조급 급료제 수업료 전액 면제 가능
□ 가계 곤란자 대상 수업료 100 ~ 25% 지원
□ 가족사 일사와 관련하여 가족사비 50% 지원
□ 교내 연구프로젝트 참여 시 수업 금감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Tel : 031-201-2146-9, Fax: 031-204-8120

2016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향방기본훈련 안내

● 훈련대상 : 전역 1~6년차 예비군 전원
● 장 소 : 금곡예비군훈련장
● 일 정

훈련명	훈련일자	인원	소속
향방 기본훈련 (8시간)	계	2,943	교수, 교직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학/치의학/법학), 특수대학원(경영/공공/관공/교육/법무/언론정보/평화복지), 문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5. 9(월)	748	
	5. 10(화)	744	
	5. 11(수)	737	
	5. 12(목)	714	
	6. 28(화)	신청자	

※ 훈련 안내는 휴대폰 문자, E-mail, 대학주보, 교내방송, 학교 / 단과대학 홈페이지, 각 행정실 게시판 등으로 공지

● 이동방법
가. 단체이동
1) 이동수단 : 대형 전세버스 이용 출발 및 복귀
2) 출발장소 / 시간 : 청운관 앞 도로 / 당일 07시50분 출발
나. 개별이동
1) 시버스 : 30분(청량리/회경동), 23분 / 1~4분(천호동), 93분(강변역)
2) 전철 : 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서 위의 버스로 환승
3) 개인차량 : 약도참조

● 참고사항
가. 간부 출신 7년차 이상, 병 출신 7~8년차, 당면해당 전역지는 미부과 나, 학과·학년 구분 없이 총시합시 및 성씨별(가·나·다·을) 학급합선 나, 복장(전투복, 전투모, 군화, 요대, 바퀴, 고무장갑)을 잘 착용하 라,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미소지자 결석처리 마, 지각자 귀가조치 - 반드시 08시 50분까지 부대정문 도착 바, 교육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부대 1일 수용인원, 버스대수 등의 사유로 일정변경 절대불가 사, 결석 및 지각으로 인하여 교발/병급형 등의 불이익처분에 유의 야, 훈련판생(예비군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누락된 예비군은 연대본부로 전화 또는 방문요망 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서류 제출시 훈련이 면제됨 차, 훈련일 기준 휴학 등으로 본인 학적이 재학 중이 아닌 학생은 훈련참석 불가 카, 2014년월 1일부 수업연한 초과(졸업요역자) 학생훈련 제외, 병무청(동원) 또는 지역 일반훈련 대상 타, 중식은 학교에서 지원되지 않으며 부대에서 지급되는 중식비 사용 파, 개인사정으로 방학 중인 6. 28(화) 일자에 받을 예비군은 4, 29(금)까지 연대본부로 방문하여 신청

● 기타
가. 기타 문의사항은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조 예비군연대본부(☎961-0148~9)로 문의 나, 훈련, 학사 등 정확한 정보 수신을 위해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포털사이트 '예비군' 검색) 현재 사용 중인 E-mail과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수정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예비군연대장

인공지능 알파고 쇼크와 인류문명의 미래

전문가칼럼 - 인공지능

송경재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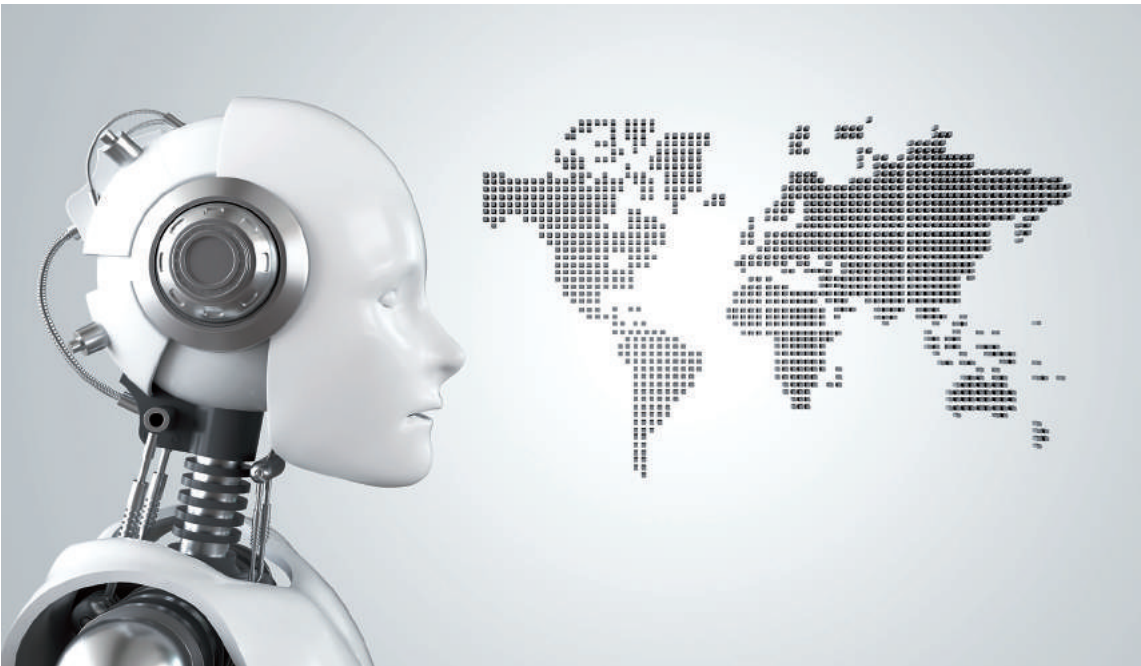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이 끝났다. 결과는 4승 1패로 알파고의 승리였다. 당초 인간의 우위가 예측되기도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다. 이번 대국을 위해 알파고는 1,202개의 CPU와 176개의 GPU(그래픽프로세서유닛)로 무장해, 이 9단의 과거 기보와 약 3,000만 번의 착점학습, 그리고 100만 번의 시뮬레이션 대국을 했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결과에 대해 불공정 게임이라 비판하기도 한다. 첫째, 알파고는 이 9단을 상대하기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다. 이 9단의 약점과 과거 패배의 학습을 통해서 승리확률을 높였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스포츠 경기에서, 상위 랭킹 선수가 특정 선수에 약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약점을 알기 때문이다.

알파고 쇼크, 인류문명의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둘째, 게임의 규칙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은 정해진 시간에 연산할 수 있는 양이 인간보다 수억 배나 우수하다. 때문에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인간에 비해 인공지능이 많은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인간을 기준으로 한 게임시간 제약이 오히려 인간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비판에도 인공지능의 능력은 여러 분야에서 확인된다. IBM의 의료 인공지능인 (닥터 왓슨(Dr. Watson))은 200만 페이지의 전문서적, 150만 명의 환자 기록을 학습해서 암과 관련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자산관리나 주식매매 등을 전담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 언론사 로봇기사는 개발된 지 오래다. 경제지 <파이낸셜뉴스>는 2월부터 로봇기자를 채용했는데 이름은 'IamFNBOT'이



다. 테스트 기간이라 인간기자가 최종 교정을 하지만 한 기사 작성에 걸리는 시간이 0.3초라고 한다. 세계적 통신사 <AP>도 2014년부터 자동뉴스 시스템을 도입해 뉴스작성 건수를 늘렸다고 한다. 인간은 야만과 약육강식, 감성적인 동물계와는 다른 이성과 합리성의 힘으로 지구 생태계의 정점에 서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은 인간 사유능력과 이성을 능가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 특히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인류문명의 미래에 대해 학자들은 3가지 시각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낙관적인 시각이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달리 통합적이고, 이성과 감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창조적 사유가 가능하다. 인공지능은 단지 연산과 계산 등에서 부분적으로 인간을 이기고 있을 뿐이고 다른 능력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둘째,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1999년에 기계가 인간을 숙주로 삼아 지배한다는 영화 매트릭스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류문명의 파괴를 경고하고 있다. 페이스북(Facebook, com)의 안면인식 프로그램 '딥페이스'는 정확도가 97%가 넘는다. 그러다 보니 얼굴사진만 있으면 타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 각종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 전투로봇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활용분야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과학해 영역의 한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다루기 위해 제도적·윤리적 문제 고민해야

인공지능은 바둑에서 몇 집 차이로 이기고 지는 것과 같은 연산처리능력의 속도나 결정은 빠르고 정확하지만, 윤리적 대응은 불가능하다.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나왔던 '도덕적 딜레마(moral dilemma)' 상황에 직면하면 혼란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선박이 난파당할 경우, 인간은 인류애적인 가치로 어린이, 노약자, 여성 순으로 구출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다수의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입력되어 있다면, 건장한 많은 사람은 살아남겠지만 약자들은 오히려 더 희생당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아직 미완성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 언젠가는 특정분야에서 인류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인류 문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의 문명사를 돌이켜 본다면,

인공지능이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거나 역으로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창조와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자연의 색깔을 보고 미(美)를 느낄 수 있을까?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을 들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새로운 현상을 추론과 주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현 단계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와는 거리가 멀다. 학습된 특정 분야에서만 뛰어날 뿐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자아는 없다.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은 효과적으로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준비와 함께 제도적·윤리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과학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에도 최소한의 제재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 정보사회의 기술발전으로 인류 문명은 기술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중요한 사회과학적, 인문학적 목표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정보사회를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연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술적·사회적·인문학적인 융복합 패러다임의 정립은 인류의 문명화된 세상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참여마당

나호정
(원자력공학 2011)



‘N포세대’라 불리는 우리,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빠르게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과거부터 많은 단어들이 젊은 층의 세대를 대표하곤 했다. 90년대의 'X세대', 2000년대의 'N세대'가 그 사례다. 이 단어들은 이전 기성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거나 컴퓨터의 보급으로 펼쳐진 정보화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곤 했다. 그렇다면 2016년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그 답은, 불행히도, 'N포세대(N拋世代)'라고 할 수 있겠다. 'N개의 것들을 포기했다'라는 뜻의 N포세대는 어느새 우리 사회의 청년층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한 세대를 대표하는 말이 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 없다.

하지만 '세대'라는 거대한 단어 앞에서 '개인'은 한없이 작은 존재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덕분에 우리는 'N포세대'라는 단어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된다.

한 세대 집단을 나타내는 단어의 등장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변별성을 보여줄 뿐 만 아니라 해당 세대 젊은이들의 무비판적인 수용과 은연의 소속감을 함축, 형성하기도 한다. 불만이 도래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지금의 N포세대 역시 그러하다. N포세대의 시작은 '3포세대'부터였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3포세대는 인간관계 형성과 사회 유지의 필수적 요소들을 포기 대상으로 둔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이러한 '포기'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들불처럼 번져나가서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5포세대'의 등장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이제는 '건강, 외모관리' 등에 이르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전포 세대(全拋世代)라는 단어까지 날기에 이르렀다. 현대의 많은 젊은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포기하는 것을 '사회 구조적 문제'가 아닌 단순한 현상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나의 어려움을 세대와 공유한다는 '거짓된 안도감'에 사로잡혀 'N포세대'라는 단어에 대한 저항감 없이 이 단어를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로 너무나 쉽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단어의 힘은 대단하다. 한 때 이슈가 되었던,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표준국어대사전의 '연인(戀人)' 항목 의미변화가 좋은 사례다. 당시 이 항목의 의미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남녀'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두 사람'으로 변경되면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점은 단어가 지니는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단어가 힘을 갖는다면, 그것의 부정적 영향력 또한 긍정적 영향력만큼이나 상당할 것이다.

우리가 현대사회 최악의 단편상을 보여주는 'N포세대'와 같은 단어들을 무력하게 수용하기 보다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경계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대의 문제점을 '수용'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하고 개선해나가려 움직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상적인 변화가 이뤄진다면, 우리는 캠퍼스 너머의 세상을 어렵게 바라보게 만드는 이 'N포세대'라는 단어를 '과거 한 때의 시대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1면에서 이어짐

예정 교리는 사람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놓았다.

첫째, 예정 교리는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가도록 자극했다. 누구도 신의 결정을 알 수 없고, 한번 내려진 결정은 결코 번복될 수 없다. 따라서 아무도 자신의 구원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성직자도, 그리고 신도 ...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신앙 태도에서 근대 개인주의가 형성됐다. 둘째, 예정 교리는 개인들을 신의 영광을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전문 지식과 기술 등을 위주로 하는 합리적 조직 형태로 결합시켰다. 이 조직은 혈연, 지연, 신분이나 합리적 규칙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셋째, 예정 교리는 뒷사람에게 존경을 표해야 했던 전통 사회의 위계서열 풍습을 개혁했다. 인간에게 과도한 존경을 표하는 것을 피조물 숭배라고 여겨 배척했다. 이런 반(反)권위적 태도는 민주주의 문화의 기초가 됐다



이제 자본주의는 신앙의 의미를 추구하는 활동에서 단지 생존을 위해 적응해야 하는 거대한 우주로 변했다

다. 넷째, 예정 교리는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고, 정직하고 근면한 직업 생활을 하도록 격려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겨야 한다. 정직하고 근면한 직업 활동에서 오는 성공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증거다. 직업 활동에 성공했다는 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될 수 있다. 다섯

째, 예정 교리는 삶 전체를 금욕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도록 자극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마음 내릴 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아주 계획적으로 꼼꼼하게 관리하고 자신의 욕망과 성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금욕적인 행동이 필요했다. 여섯째, 예정 교리는 부의 축적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정직한 직업 생활을 통해 획득한 돈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증명하는 표시였다. 돈을 버는 것이 죄가 아니라 돈을 낭비하는 것이 죄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하나의 제도로 작동하기 시작하자, 그 정신의 원천이었던 종교적 신앙은 사라졌다. 이제 자본주의는 신앙의 의미를 추구하는 활동에서 단지 생존을 위해 적응해야 하는 거대한 우주로 변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여전히 자본주의 하면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떠오르는가?

NANUM

: 경희대학교 생활관 주최

1

희망나눔 자선 바자회

2016. 05. 12 목요일 / 오전 10시 ~ 오후 4시
우정원 1층 현관 앞

한해 수익금은 저소득층 가정과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 물품 기부 안내
- 사용 가능 물품 기부 1개 : 우의, 숄서방, 숄리시 교환권 등 액자
- 사용 가능 물품 기부 2개 이상 : 분식 교환권 (정)
- 부품의 학생식당에서 교환
- 적용이, 화로, 자연 재료
- 사용 시간 오전 11시 ~ 오후 2시

2

제1회 나눔·문화 콘서트

2016. 05. 12 목요일 / 오후 6시 ~ 8시
예술·디자인대학 A8D홀

- 생활관 특유의
- 우리들의 우리 콘서트 talker 모집
- 접수기간 : 2016년 4월 11일 ~ 4월 27일
- 생활관 후원 선반
- 생활관 후원 선반
- 생활관 후원 선반
- 생활관 UCC 공모전
- Life Your Ideal 내가 만드는 생활관 이야기
- 접수기간 : 2016년 4월 11일 ~ 5월 2일

축하공연 : 소울다이브 · 트 버리우스 · 한가람 등 다수 예정

자세한 접수사항은

네이버, 이마트로
인착해 주세요

